

한국합섬 구미공장 조업 재개

임금단체협상 타결 ... 기본급 5% 인상에 조건부 정규직화 승인

한국합섬 노사가 6월28일 기본급 5% 인상을 골자로 하는 임금인상안에 합의하고 조업을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다.

노사는 협상에서 임금을 5% 인상하고 하도급(비정규직) 근로자를 조건부 고용한다는 데 합의했다.

이에 따라 6월23일부터 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을 진행해 온 한국합섬 구미공장의 노조는 6일만에 생산라인에 복귀해 조업을 재개하기로 했다.

<화학저널 2004/06/29>